

# 만주국의 라디오 방송과 이동하는 미디어

- 방송자동차의 1차 순회 활동을 중심으로

이복실\*

## <차례>

1. 들어가며
2. 방송 기술의 발전과 이동방송의 출현
3. 이동하는 미디어 - 방송자동차의 활동양상
4. 결론을 대신하며

## <국문초록>

이 글은 전시체제기에 등장한 만주국 특유의 방송 형태인 이동방송의 출현 배경과 그 활동 양상에 주목했다. 만주국의 이동방송은 전시체제기 사상전의 '무기'로서의 문화예술의 프로파간다성이 강화되면서 국민총동원을 위한 '미디어의 이동'이 부각된 한편, 만주전선의 설립과 활약 및 '방송사업 5개년계획'의 추진 하에 송신기술과 방송망이 확충되고 자체적인 수신기 개발과 자동차 제조 기술이 확보되면서, 그리고 방송 보급 및 대다수 중국인 청취자의 확보가 요구되면서 만주국의 프로파간다 및 과학과 문명의 상징으로 등장했다. 그 중 방송 기술과 수신기 개발 및 자동차 제조 기술은 방송자동차의 출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방송자동차는 전력이 부족한 농촌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로 국책선전과 과학문명에 대한 인식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보다는 방송 동원의 유인책으로 채택되었던 음악이나 전통곡예, 영화, 만화 등 문화오락에 더욱 집중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부터 근대 오락문화에 대한 소비 주체의 욕망을 읽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방송자동차는 과학과 문명의 상징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근대 미디어 문화에 대한 인식을 심어줌과 동시에 그에 대한 소비 주체로서의 욕망을 일깨워주었다. 따라서 방송자동차의 가시적인 효과는 그가 지닌 미디어의 근대성(과학성, 오락성)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반면 방송 주체가 의도했던 방송자동차의 프로파간다성이 얼마간의 효과를 거두었는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동방송을 통해 드러난 국책선전에 대한 무반응 내지는 외면의 태도로부터 볼 때 이동방송의 프로파간다성이 의도대로 순조롭게 수행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졸업.

주제어 : 과학기술, 라디오 방송, 만주국, 만주전신전화주식회사, 문명

## 1. 들어가며

근대 과학기술의 산물인 라디오는 정보 전달의 속보성과 동시성 및 광역성 등과 같은 특징으로 인해 20세기 전반 일본과 서양 제국의 패권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선전도구로 인식되었다. 동아시아의 라디오 방송은 곧 그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1920~1930년대 제국 일본의 부단한 이동과 확장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했다. 그 중 일본 관동군의 군사조작에 의해 건립된 만주국의 라디오 방송은 만주전신전화회사(滿洲電信電話株式會社)(약칭 만주전전)의 설립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발전했다. 그 과정에서 첨단 기술력과 독보적인 기능을 지닌 라디오 방송은 프로파간다로서 만주국의 선전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대중오락매체로서 각 민족의 일상생활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라디오 방송은 만주국의 선전전과 대중오락문화를 이해하고 그 특수성을 파악하는 데 유효한 매개라 할 수 있다.

만주국의 특수성이란 곧 일본 제국의 기타 식민지와는 다른 ‘독립국가’ 및 ‘복합민족국가’로서 발현되는 특성이다. 이를테면 강희주가 논의한 바와 같이 만주국은 시공을 초월한 라디오의 전파 기능을 통해 ‘민족 통합 내지 ‘국민 창출’ 및 ‘만주문화 건설’ 등 일련의 국책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천하고자 했으나 결국 사상의 단일성과 문화의 다양성 추구라는 모순된 논리를 초래하고 말았다.<sup>1)</sup> 이와 같은 논리의 모순성은 만주국 자체의 모순이자 특수성이었다.

1) 강희주, 「만주국의 선전전과 라디오 방송」,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60~61면.

강희주가 만주국 라디오 방송의 전반적인 면모와 그 특성을 규명했다면 서재길은 보다 더 구체적인 측면, 즉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착안하여 ‘식민자’와 ‘피식민자’ 또는 ‘발신자’와 ‘수신자’로서의 만주전전과 중국인 청취자들의 역동적인 권력관계 및 그 상호작용에 대해 밝혔다. 그 글에 의하면 중국인 청취자들은 만주전전이 보낸 선전·교화의 메시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서 보다 능동적으로 수용했으며, 그 결과 만주국의 라디오 방송은 “식민지 공공영역”으로 성립되었다.<sup>2)</sup>

그 밖에 만주국의 라디오 방송정책을 논한 카와시마 신(川島真)의 글이 주목된다. 그의 글에 의하면 만주국의 라디오 방송은 ‘다언어’, ‘다양화’, ‘이상적 확대’ 등의 이상을 실현했지만 역으로 전파네트워크, 담론권, 프로그램편성 등 측면에서 ‘경계’를 초래하기도 했다.<sup>3)</sup>

- 
- 2) 중국인 청취자들은 뉴스, 시국 강연 등 만주전전이 고안한 프로그램을 수동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선호하는 오락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대다수의 중국인 청취자를 포섭하기 위해 만주전전은 중국어 방송을 대대적으로 확충함과 동시에 그들이 선호하는 오락프로그램 편성에 힘쓰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와 같은 역동적인 권력관계와 상호작용에 의해 만주국의 라디오 방송은 “식민지 공공영역”으로 성립되었다.(서재길, 「제국의 전파네트워크와 만주의 라디오 방송」, 『한국문학연구』 제33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7, 203~204면.)
- 3) 여기서 ‘경계’는 일본정신으로의 ‘사상적 통합’ 또는 ‘제국적 일체감’에 반하는 개념으로 교환방송과 담론 통제, 프로그램 편성 등의 측면에서 발현된 만주국(중국인)과 중국 본토 사이의 사상·문화적 경계를 가리킨다. 이 글(川島真, 「滿洲國とラジオ」)이 수록된 『전쟁·라디오·기억』(貴志俊彦·川島真·孫安石 編, 『戦争ラジオ・記憶』, 東京:勉誠出版, 2006.)은 일본 제국 전반의 라디오 산업과 그 권력, 식민지 공공성, 전쟁, 국가와 미디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어 동아시아 라디오 방송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이다. 그 밖에 만주국 라디오 방송에 관한 연구로 관동주 다렌의 방송과 청취자의 관계를 논의한 글(橋本雄一, 「聲の勢力版圖 - 「關東州」大連放送局と『滿洲ラジオ新聞』の連載」, 『朱夏』 第11號, せらび書房, 1998.)과 만주국의 중국인 방송극을 연구한 글(代珂, 「偽滿洲國的廣播劇」, 『外國問題研究』 第三期, 東北師範大學, 2014.)이 있다. 만주국의 라디오 방송극은 중일전쟁 이후의 신극운동 전개와 더불어 출현하고 발전했다. 방송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및 청취자들의 기호에 의해 방송극은 무대극을 능가할 정도의 발전을 이루었으며 만주국의 신극대중화운동에 큰 힘을 이바지했다. 다이커(代珂)의 연구에 의하면, 방송극은 음성자료의 유실로 실제 방송 수준은 가늠할 수 없지만 이는 분명 만주국 역사 속의 일종의 문예실험이었다. 또한 만주국의 방송극이 물론 국책사상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당시 대중들의 일상생활과 사회의 단면을 발견할

본고는 이상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미처 주목받지 못한 전시체제기 만주국의 이동하는 미디어로서의 이동방송<sup>4)</sup>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동방송은 1941년, 만주국의 근대 미디어 기술 및 자동차 기술의 집합체로 등장한 방송자동차의 운영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고는 그의 출현 배경을 고찰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확보한 방송자동차의 1차 순회 활동을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삼아 이동방송의 활동 양상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방송자동차 및 이동방송의 과학성과 프로파간다성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수용되었으며, 어떠한 효과를 발휘했는지 밝혀보기로 한다.

## 2. 방송 기술의 발전과 이동방송의 출현

전시체제기 일본을 비롯하여 조선, 만주국 등 제국 권역 내에서 발견되는 대중 미디어 활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그 ‘이동성’에 있다.

---

수 있었다.(代珂, 같은 글, 17頁.) 그런 점에서 만주국의 조선인 방송극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만주국 신극 극단의 효시이자 국책선전을 취지로 한 관변 극단이었던 대동극단(일본어부, 중국어부, 조선어부로 구성)에 대한 기록(大同劇團, 『大同劇團組織』, 『宣撫月報』, 1939, 66~69頁.)에 의하면 1938년 한 해 동안 대동극단 조선어부에 의해 조선어 방송극이 총 8회 방송되었다. 1937년 설립 당시 대동극단은 일본어부와 중국어부로 구성되었으며 그 이듬해 2월에 조선어부가 추가로 구성되었다. 조선어부는 1938년 한 해 동안 활동하고 단원들의 갈등으로 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대동극단의 공연 작품으로 조풍녕(趙鳳寧)의 <新アリラン>, 이타가키 모리마사(板垣守正)의 <國境の霧>, 후지카와 켄이치(藤川研一)의 <蒼空>, <風> 등이 있다. 대동극단이 일반적으로 무대 공연작을 방송극으로 내보냈던 사실로부터 보아 조선어 방송극 역시 이 네 작품 중에서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4) 본고에서 주로 참고한 『大同報』는 이동방송을 ‘유동방송(遊動放送)’이라 지칭하고 있는데, 그것이 당시의 공식적인 명칭이었던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전시체제기 연극에 있어서는 제국 일본과 조선은 물론 만주국에서도 ‘이동연극’이라 지칭했으며 ‘방송자동차’의 수행기에서도 ‘이동’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고는 ‘이동방송’이라는 용어를 잠정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즉 이 시기 제국 전반의 대중 미디어는 고유의 활동 공간을 벗어나 이동하는 미디어로서 크게 기능했다. 사실 ‘미디어의 이동’은 전시체제기라는 특정한 시기에만 존재했던 현상은 아니다. 가령 신극의 경우만 보더라도 일본에서의 그 ‘이동’의 역사는 메이지시기로 보다 훨씬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부터 1910년대까지 이미 지방을 순회하는 형식의 연극이 상당수 존재했다.<sup>5)</sup> 이와 같은 순회연극은 1920년대의 조선에서도 확인된다. 일본에서 유학하던 조선인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조선 곳곳을 순회했다는 사례가 연극사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sup>6)</sup> 전시체제기 이전 일본과 조선의 순회 극단은 신극운동 혹은 극단의 생존 및 재만 동포의 위안 등을 목적으로 국내는 물론 만주와 중국 본토까지 진출하며 비교적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중일전쟁 이후 전시 총동원체제로 나아가면서 연극, 영화, 음악, 방송 등과 같은 대중 미디어를 통한 선전과 동원이 중요시되자 연극을 비롯한 기존의 ‘미디어의 이동’은 점차 정부 주도의 연맹이나 협회의 통일적인 관리와 통제를 받게 되었다.<sup>7)</sup> 따라서 전시체제기 ‘미디어의 이동’에는 국책선전과 전쟁동원의 공리적 목적이 강제될 수밖에 없었다.

만주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1941년에 이르러 만주국 정부는 프로파간다로서의 문화예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예문지도요강』을

5) 홍선영, 「총동원체제의 이동연극과 프로파간다」, 서정원·임성모·송석원 편, 『제국일본의 문화권력』, 소화, 2011, 451면.

6) 1920년대에 순회 활동을 했던 극단으로는 동우회연극단, 갈뚝회, 토월회 등이 있다. 이두현은 이들의 연극 활동을 “최초의 학생극운동”으로 규명했다. 이와 관련된 글은 이두현, 『한국신극사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104~116면 참고.

7) 전시체제기 조선의 ‘미디어의 이동’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 김호연, 「일제 강점 후기 연극 제도의 변화 양상과 그 의미: 이동극단, 위문대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30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배선애, 「동원된 미디어, 전시체제기 만담부대와 만담가들」, 이상우 편, 『전쟁과 극장』, 소명, 2015; 이덕기, 「일제하 전시체제기 이동연극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30집, 한국극예술학회, 2009; 이화진, 「일제 말기 이동극단 활동의 전개 양상과 그 한계」, 『한국연구』 제30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3.

반포했다. 그 후, 예문 활동을 더욱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각종 예문단체를 결성하는 한편 ‘증산보국, ‘근로보국, ‘개척봉사, ‘성전필승 등과 같은 국책동원을 내용으로 한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갔다.<sup>8)</sup> 그리고 그 활동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면서 전국적인 예문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이를 계기로 일명 ‘종이연극이라 불리던 카미시바이(紙芝居)를 포함한 이동연극과 이동영사 등 ‘미디어의 이동이 보다 활발해졌다.<sup>9)</sup> 이러한 정치·문화적 배경은 이동방송의 출현에 한몫했다. 그러나 보다 결정적으로 이동방송이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은 만주국의 라디오 방송 기술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었다.

만주국이 건립되기 전인 1920년대 중후반에 관동주(關東州)와 평톈성(奉天省), 지린성(吉林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등 지역에서 이미 방송이 송출되었다.<sup>10)</sup> 그 후, 1931년의 만주사변을 계기로 관동군은 만주 각 지역

- 
- 8) 만주국 정부는 1941년 3월에 홍보처중심의 중앙집권체제를 본격적으로 개시함과 더불어 문화예술에 대한 통치정책인 『예문지도요강』을 반포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예문지도요강』의 내용에 따르면 건국정신을 토대로 한 만주국의 독자적인 문화를 건설함과 동시에 그를 통해 복합민족국가로서의 ‘국민 통합, 나아가 ‘동아신질서를 실현하는 것이 그 취지였다. ‘왕도낙토, ‘민족협화 등과 같은 건국정신을 토대로 한 문화란 사실상 국책문화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 후에 활발하게 전개된 국책동원의 문화 활동이 이를 대변한다. (이복실, 「만주국 조선인 연극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56~61면 참고)
- 9) 중일전쟁 이후 만주국의 신극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대동극단을 비롯한 각 지역의 관변 극단은 전만 지역을 순회하며 신극대중화운동에 앞장섰다. 그런데 『예문지도요강』이 반포되고 결전문예운동이 벌어지면서 극단 내부에 ‘이동연극반(대동극단) 혹은 ‘이동연예반(조선인 계림극단)되거나 극단 전체가 이동하는 이른바 이동연극의 움직임이 활발해진다.(이에 관한 글은 이복실, 앞의 글 참고) 종이연극은 ‘종이연극선무대(조선인) 혹은 ‘화극대(중국인)를 조직하여 새로운 미디어의 이동으로 활약했다. 한편 보다 일찍 시작된 순회영화는 전시체제기에도 꾸준히 그 맥을 이어나갔다.(만주국의 순회영화사에 관한 글은 김려실, 「조선영화의 만주 유입 - 『만선일보』의 순회영사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32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7 참고)
- 10) 1925년에 일본 조차지였던 만주 관동주에 이미 일본인 청취자를 대상으로 방송(호출부호 ‘JOAK’)이 송출되었고, 1928년에는 장취린(張作霖) 군벌 정권 치하의 평톈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에서도 방송(호출부호 ‘COHB’)이 시작되었다. 일본 제국의 식민지였던 조선과 타이완(台灣)이 1927년과 1928년에 각각 방송을 시작한 사실을 감안하면

을 점령함과 동시에 가장 먼저 해당 지역의 교통과 통신을 장악해나갔다. 목적은 만주의 교통과 그 주변의 통신권을 장악함으로써 자신들의 침략 행위 및 항일사상의 전파를 차단하는 한편 만주국의 건국이념과 독립국가로서의 정당성을 선전하려는데 있었다. 일본 제국은 이처럼 무력침략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국 초기부터 언론과 통신을 만주국의 국책기관으로 포섭하는 데 주력했다. 이에 따라 불과 건국 4개월 뒤인 1932년 7월 2일에 관동군 사령관의 만주국 통신 지도권을 규정한 『대만주국통신정책』(對滿洲國通訊政策)이 반포되었고, 이듬해 9월 1일에는 일본과 만주국 정부의 합작 하에 만주전전이 설립되었다. 이를 계기로 만주국의 방송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만주전전은 만주국 최고 권력기관인 총무청 산하의 홍보처의 직접적인 지도와 통제를 받으며 각 지역의 통신시설을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합병함으로써 일원적인 통신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더불어 라디오 방송을 전국적으로 확충하고 보급함으로써 일원적인 전파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만주국의 효과적인 식민통치를 실현하는데 일조하는 것이 만주전전의 핵심 사업이자 그 사명이었다.

만주전전의 활약으로 13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만주국의 라디오 방송은 그 시설과 전파망의 확충, 수신기 제작과 보급, 청취자 획득, 교환방송 등과 같은 측면에서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 중 방송시설과 방송망의 확대 및 수신기의 제작 기술과 방송보급은 이동방송의 출현에 직접적인 추동 역할을 했다.

1934년에 이르러 신징(新京)-하얼빈(哈爾濱), 다롄(大連)-평톈(奉天), 평톈-신징 사이에 방송용 케이블이 연결되고 그해 11월, 수도 신징에 기존 송출력의 10배에 달하는 100kW의 송신소가 개설됨에 따라 만주의 거의 전 지역에서 라디오 방송을 수신할 수 있게 되었다.<sup>11)</sup> 이는 난징 국민정

만주 관동주의 무선통신기술이 보다 빨리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11) 서재길, 앞의 글, 188면.

부의 75kW를 뛰어넘은, 동아시아 최대 출력의 방송국이였다. 만주전전은 이를 통해 방송사업 쇄신은 물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근대국가를 건설해 나가는 만주국의 저력을 전 세계적으로 과시하게 되었다.<sup>12)</sup>

이어 1936년 11월, 신징에 10kW 출력의 방송국을 추가로 개국하면서 100kW의 장파 방송이 일본어 위주의 제 1방송(영어, 러시아어, 몽고어 방송도 부분적으로 송출)을 담당하고 10kW의 중파 방송이 중국어방송 위주의 제 2방송(조선어 방송도 부분적으로 송출)을 담당하게 되었다.<sup>13)</sup> 이로써 만주국은 본격적으로 이중어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1940년 이후 지역 방송국의 출력 또한 10kW이상으로 기존에 비해 훨씬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1940년, 통화에 10kW의 방송국이 개국했고 1942년 11월에는 연지방송국이 50kW 대출력의 송신기를 증설하여 이중방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심지어 만주국 붕괴 6개월 전인 1945년 2월에도 50kW의 대출력 방송국이 지린에서 개국했다. 이처럼 가혹한 전쟁과 물자난 속에서 만주국의 방송국은 파괴는커녕 오히려 매년 증가하여 1945년 8월 일본 제국이 폐망할 당시에는 26개국에 존재했다.<sup>14)</sup> 이는 '방송사업 5개년 계획'의 목표(20개국)를 초월한 수치였다.<sup>15)</sup>

만주전전은 이처럼 방송망을 확대하고 방송 시설을 강화함과 동시에

- 
- 12) 동양 최대급의 출력이 신징방송국에 의해 대체되기 이전, 난징방송국의 75kW 출력은 동양 최대이자 세계 3위였다. 그 자리를 신징방송국이 대체하게 되자 만주전전은 '난징 국민정부와의 전과전에 대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 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기술을 보유하게 된 사실에 찬양과 감격을 금치 못했다. (『會社創立より昭和十二年迄の概要』, 『滿洲放送年鑒』, 1939, 8頁.)
- 13) 吉林省廣播電視廳史志辦, 「東北淪陷時期的廣播電台」, 孫邦 編, 『偽滿文化』, 吉林: 吉林人民出版社, 1993, 259頁.
- 14) 蔣磊, 「偽滿洲國媒介傳播特征辨析」, 『中國社會科學報』, 中國社會科學雜誌社, 2015, 1頁. 만주국의 라디오 방송국은 전쟁의 혼란과 파괴 속에서도 부단히 증설된 반면 국민당정부의 50여 개 방송국은 전쟁 속에서 절반 이상 파괴되어 1944년에 이르러 겨우 23개 남았다.
- 15) 「放送五個年計劃に就いて」, 『滿洲放送年鑒』, 1939, 56頁. 이 글에 의하면 '방송 5개년 계획'은 1942년에 이르러 20개국 외에 방송 청취자 50만 명(일만 통합) 달성을 목표로 상정했다.



수신기 제작 및 방송 보급에도 힘을 기울였다. 만주국은 1941년에 이르러 자체적으로 수신기를 생산하기 전까지 주로 일본에서 수입한 제품을 판매했다. 그 중 한 종류는 만주전전이 개발한 모델을 일본에서 생산한 ‘전전형(電電型) 수신기였다. ‘전전형’ 수신기는 일본 제품보다 저렴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세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비교적 통일된 규격을 갖추고 있어 전파 통제에 유리했다. 1940년에 새로운 규격의 제품을 지정하기 전까지 이 수신기는 크게 교류식(交流式) 수신기와 전지식(電池式) 수신기로 구분되었다. 세부적으로 교류식 수신기는 출력에 따라 국민형(주로 주파수범위에 따라 1호, 3호), 보급형(1~9호), 표준형(1~8호), 슈퍼형 등 20종, 전지식 수신기는 출력에 따라 표준 및 2호 등 2종의 제품이 있었다. 하지만 종류가 다양한 만큼 각각의 취급 범위와 방법도 달랐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제작과 유지 과정도 다소 번잡했다. 만주전전은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여 보다 통일된 규격의 수신기를 보급하기 위해 1940년에 수신기의 규격을 새롭게 제정했다. 이에 따라 교류식 수신기는 보급형(A, B호), 표준형(A, B호), 슈퍼형(B호)으로, 전지식 수신기는 B호로 새롭게 규격화되었다. 즉 출력, 주파수범위, 회로 방식과 진공관 등에 따라 총 22종으로 분류되었던 기존의 수신기가 총 6종으로 간소화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중일전쟁 이후의 더욱 치열해진 전파전에 대응하여 청취 가능한 주파수 영역대를 제한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제국의 국책선전에 반하는 방송이나 해외로부터 전달되는 사상적 침공을 반드시 차단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후, 1941년에 이르러 만주국에서도 수신기의 핵심 부품인 진공관을 생산할 수 있게 되고, 1942년에 수신기 제조회사가 만주국에 설립되면서 일부 수신기를 직접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수신기의 자체 개발 및 제조 기술을 비롯한 만주국 라디오 방송의 전반적인 기술이 부단히, 그리고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산업개발정책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만주국을 산업경영과 기획기술의 시험장으로 만들”고자 1937년

부터 본격적으로 ‘산업개발 5개년계획’을 실시하면서 광적인 산업개발에 돌입했다.<sup>16)</sup> 1938년부터 시작된 ‘방송 5개년계획’은 곧 ‘만주국 산업개발 5개년계획’의 일환이었다. 만주국의 라디오 방송이 단순히 프로파간다뿐만 아니라 산업발전 및 근대국가 건설의 한 요소로서도 중요시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실제로 ‘방송사업 5개년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만주국의 라디오 방송은 큰 성과를 이루었다.

- ① 전파의 강화를 계획하여 전만주요 지역을 완전히 방송청취권 내에 들 것.
- ② 일·만, 두 언어 전용 방송을 진행원칙으로 하여 방송국의 신설 및 이중방송화(二重放送化)를 계획할 것.
- ③ 침범 전파의 예방법을 강화할 것.
- ④ 인구 밀도가 높은 중앙지역의 전력을 강화할 것.<sup>17)</sup>

위의 ‘방송사업 5개년계획’ 방침은 1938년 제 1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 뒤 매년 구체적인 방침이 개정되었지만 그 핵심은 제 1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방송시설과 방송망의 확충 및 강화’에 있었다. 만주전전은 이 사업을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라디오방송기술연구소<sup>18)</sup>를 설립하고 방송기술자를 양성하기도 했다. 만주전전은 이와 같은 사업 방침과 그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매년 각 지역에 방송국을 신설함과 동시에 그 시설을 강화하는 등 라디오

16) 프래신깃트 두아라, 한석정 역, 『주권과 순수성 -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나남, 2008, 142~157면.)

17) 美濃穀善三郎, 「滿洲放送事業現狀」, 『宣撫月報』, 1939.5, 31~32頁.

18) 만주전전은 이 연구소의 설립 목적이 ‘전기통신공학에 관한 응용연구를 통해 방송사업의 기술적 진전을 도모함으로써 전기통신기술을 확립하고 전전화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 기술연구소에 의해 방송 시설이나 이중방송, 전파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만주전전 기술연구소의 연혁, 조직, 설립 목적 및 연구 업적에 관해서는 『滿洲放送年鑑』, 1940, 180~181頁 참고.

방송의 발전을 추진시켜 나갔다. 『만주방송연감』에 기록된 「만주 방송기술의 근황」에 따르면 1940년 9월에 이르러 청취자가 30만 명, 방송국이 15개에 달했으며 그 중 8개 방송국에서 이중방송을 실시했다.<sup>19)</sup> 또한 국내 용 총 공중선전력이 118.230kW, 연 작동시간이 14만 시간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국제방송을 강화할 목적으로 신징중앙방송국이 기존의 다롄중앙방송국의 대외선전임무를 인수하여 1939년 7월과 1940년 7월에 20kW의 단파 송신기를 두 대나 증설했다. 이를 통해 러시아와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 지역으로 매일 4차례, 하루에 3시간 55분씩 해외방송까지 진행했다.<sup>20)</sup> 만주전전은 만주국의 라디오 방송이 이처럼 ‘독자적인 전파력을 통해 전국의 문화 향상과 신속한 보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점차 최고의 수준을 목표로 정비되어가고 있다.’<sup>21)</sup>라며 긍지감을 드러냈다.

그 밖에 수신기 및 방송 보급을 통한 청취자 획득의 수요 역시 이동방송의 출현을 자극한 요소 중 하나였다. 다양한 보급 사업<sup>22)</sup>을 통해 청취자수는 1940년 말에 30만 명, 1945년 8월 종전 시에 70만 명을 돌파하면서

19) 「滿洲に於ける放送技術の近況」, 『滿洲放送年鑒』, 1940, 169頁. 1940년 당시 大連, 新京, 奉天, 哈爾濱, 安東, 牡丹江, 承德, 延吉, 齊齊哈爾, 佳木斯, 黑河, 海拉爾, 營口, 錦縣, 富錦 등 15개 지역에 방송국이 존재했다. 그 중 大連, 新京, 奉天 등 세 곳의 중앙방송국을 비롯하여 安東, 齊齊哈爾, 海拉爾, 營口, 錦縣 등 지역 방송국에서 제 2방송을 실시했다.(「放送局放送設備」, 『滿洲放送年鑒』, 153~163頁 참고.) 1941년 6월에 소련과 독일 간의 전면전이 개시되면서 하얼빈에 집중되어 있는 러시아인들에 대한 선전 수요가 강화됨에 따라 만주전전은 하얼빈중앙방송국에 백계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제 3방송(러시아어)까지 증설하면서 다언어방송이 전개되었다.

20) 신징의 해외단파방송은 주로 러시아, 유럽, 미국, 중국, 동남아, 등 지역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방송 언어는 중국어, 일본어, 몽고어, 러시아어, 영어(때로는 독일어, 프랑스어)를 사용했다.(吉林省廣播電視廳史志辦, 前引書, 261頁.) 그 밖에 만주전전은 가정용 수신기 판매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에 유선을 설치하여 공동청취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방송망 확대 및 청취자 증가에 힘썼다.

21) 『滿洲放送年鑒』, 1940, 169~170면.

22) 만주전전은 1936년에 수신기 직판제도를 수립하고 각 지역에 라디오 영업소를 운영하여 판매 및 서비스업을 강화했으며 저소득층을 위해 월 할부 제도를 실시하고 판촉 활동 및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수신기 보급과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 청취계약해지 예방 등을 통한 방송 보급에 애썼다. (이에 관한 내용은 山根忠治, 「吾が國放送業務の概況」, 『宣撫月報』, 1941.9; 강희주 앞의 글 참고)

비약적으로 증가했다.<sup>23)</sup> 그러나 가구수와 청취자수의 비율로 볼 때 이러한 수치는 결코 이상적인 보급률에 도달했다고 할 수 없었다. 『선무월보』에 의하면 1941년을 기준으로 평균 백 가구당 5가구가 방송을 청취했다. 또한 이동방송이 등장하기 전 각 민족별 청취자수는 1940년 말을 기준으로 일본인 155,285명, 중국인 173,566명, 조선인 7,950명, 기타 3,852명, 합계 340,645명이었다. 중국인 청취자수가 가장 많았지만 이를 가구당 비율로 볼 때 일본인은 백 가구당 약 74명인 반면 중국인은 백 가구당 약 3명에 불과했다.<sup>24)</sup> 만주전전이 적자를 해결하고 무엇보다 제국 일본과의 사상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만주국 인구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청취자를 적극적으로 포섭해야 했다. 그 중 특히 만주의 벽지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농촌 주민들을 포섭하는데 여러모로 난점이 존재했다. 당시 대부분의 농촌 지역은 교통이 불편한데다 전력도 부족하고 라디오 방송에 대한 인식 또한 도시 주민에 비해 낮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시국 하의 국민총동원정책을 선전하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의 청취자를 확보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했다. 이처럼 전시체제가 만주국의 라디오 방송이 직면한 일련의 과제들과 그가 도달한 기술력이 이동방송의 출현을 자극했다. 거기에는 만주국의 자체적인 자동차 제조 기술도 상당히 중요한 지원군 역할을 했다.

요컨대, 만주국의 이동방송은 일차적으로 전시체제가 문화예술의 프로파간다적 기능이 강화되면서 국민총동원을 위한 ‘미디어의 이동’이 부각되고 이차적으로 만주전전의 설립과 활약 및 ‘방송사업 5개년계획’의 추진 하에 송신기술과 방송망이 확충되고 자체적인 수신기 개발과 자동차 제조 기술이 확보되면서, 그리고 방송 보급 및 대다수 중국인 청취자의 확보가 요구되면서 1941년 10월에 결국 빛을 보게 되었다.

23) 川島真, 前引書, 118頁.

24) 山根忠治, 「吾が國放送業務の概況」, 『宣撫月報』, 1941년, 6면.

### 3. 이동하는 미디어 - 방송자동차의 활동 양상

1938년 만주전전에 의해 기획된 방송자동차는 3년 동안의 신중한 연구와 제조 및 개조 과정을 거쳐 1941년 10월에 드디어 완성되었다.



<사진 1> 방송자동차-봉황호와 기린호

거대한 모형과도 같은 거북이 모양의 방송자동차(<사진 1><sup>25)</sup>)는 수신용인 봉황호(鳳凰號)와 발신용인 기린호(麒麟號) 총 두 대 제조되었고 그 제조비는 10만 원이었다. 차 위에 설치되어 있는 안테나와 자력발전기를 이용하면 각 지역의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동시에 단독으로도 방송할 수 있었다. 차 앞에는 전류계와 전압계가 있고 옆에는 열을 식혀주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차 안에는 축음기가 있어 수시로 음반을 재생시킬 수 있었다.<sup>26)</sup> 이 두 대의 방송자동차는 그야말로 ‘축소된 방송국이자 ‘이동하는 방송국이었다. 방송자동차는 당시 동양 최초의 신문물이자 만주국 과학과 문명의 상징이었다.

사실 선전을 목적으로 한 방송자동차는 서양에서 보다 일찍 출현했다.

25) 『大同報』, 1941.10.25.

26) 劉恩沛, 「遊動放送局隨行記」(中), 『大同報』, 1941.10.26.

하지만 라디오 방송이 거의 보급되었기 때문에 방송자동차는 농촌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선전을 할 때에만 운행되었다.<sup>27)</sup> 이런 점을 비추어볼 때 만주국의 방송자동차가 동양 최초의 산물이라는 사실은 역으로 만주국이 일본을 비롯한 동양의 기타 국가에 비해 라디오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특히 제반 시설이 낙후한 농촌 지역의 라디오 보급 및 국책 선전이 시급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셈이었다.

방송자동차가 제조된 후 만주전전은 지린성-‘제 1코스’를 시작으로 ‘제 2코스’, ‘제 3코스’ 등 순차적으로 다른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었다.<sup>28)</sup> ‘제 1코스’는 신징(新京), 지린(吉林), 자오허(蛟河), 신잔(新站), 판스(磐石), 화덴(樺甸), 차오양진(朝陽鎮), 하이룽(海龍), 류허(柳河), 산청진(山城鎮), 동평(東豐) 등 11개 지역을 40일 동안 순회하는 것이었다.<sup>29)</sup> 순회 일정을 확정 한 후 선전 작업이 진행되는데, 이는 주로 만주전전 지사나 라디오 영업소, 협화회 등 관련 기관에서 방송자동차의 공개 방송을 선전하는 포스터를 제작·배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순회 지역을 확정하고 선전 작업을 마친 후 1941년 10월 15~16일, 방송자동차는 신징 근교의 샤쥬타이현(下九台縣)에서 이틀 동안 실험운행을 했다. 이렇게 사전 준비를 성공적으로 마친 방송자동차는 22일에 정식으로 지린을 향해 출발했다. 이동방송에 동원된 인원은 방송부장을 비롯한 각 관계 사원, 자동차 반장과 기술자, 운전기사 및 협화회 관계자들과 신문기자 등 24명이었다.

‘제 1코스’의 순회 일정을 보면 목적지에 도착한 방송자동차는 일반적으로 먼저 방송국이나 라디오 영업소 또는 협화회, 경찰국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다음 광장,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장소를 돌면서 오후에 진행

27) 劉恩沛, 「遊動放送局隨行記」(中), 『大同報』, 1941.10.26.

28) 현재 확인된 제1 순회 코스가 당시의 지린성 지역인 것으로 보아 성(省)단위로 순회 지역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린성 외의 기타 순회 코스에 대한 정보는 제시되지 않았다. 본고는 ‘제 1코스’에 해당하는 지역의 순회 활동을 ‘1차 순회 활동’으로 지칭한다.

29) 「放送自動車の處女運行」, 『電電』, 1941.11, 58頁.

될 공개 방송을 홍보했다. 수행기에 따르면 방송자동차가 지나갈 때마다 거리는 길이 막힐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왔다. 음악은 물론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대구(大鼓), 평시(評戲), 상성(相聲) 등<sup>30)</sup> 전통극예가 거북이 모양의 차창을 뚫고 흘러나오는 기이한 물체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차량에 동승한 기자마저 이를 “소리나는 괴물”이라 칭하며 충격과 감탄을 금치 못할 지경이었다.<sup>31)</sup> 그렇다면 농촌 주민들은 과연 어떤 반응들을 보였을까.

“저기, 저쪽에 까오리(高麗) 아주머니 두 명이 오네요”라며 윈핑(雲鳳)이 나를 밀었다. 과연 보따리를 머리에 인 두 사람이 걸어오면서 우리들의 차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차가 멈춘 줄 알고 갑자기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런데 차가 움직이자 두 사람은 이 괴물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아마도 너무 미끄러워서 잉어보다 잡기 어렵다고 말한 듯 했다.

한 무리의 아이들이 다가오자 나는 창밖을 향해 “알고 있니?”라고 물었다. 그러자 “무선전”이라며 한 아이가 답했다. 입학도 안한 듯한 아이도 알고 있다니, 이는 확실히 문화 발전의 현상이다.<sup>32)</sup> (번역-인용자)

지린시로 이동하는 도중에 마주친 두 조선인 여성의 반응을 기록한 글이다. 두 여성이 움직이는 차량을 향해 무엇이라고 외쳤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자동차를 만지며 호기심을 드러낸 것은 분명하다. 반면 아이들은 그 정체를 알고 있었으며 그 사실에 기자는 ‘문화 발전을 운운하며 놀라움을 표했다. 하지만 ‘교육도 받지 못하고’ 문화적으로도 소외된 농촌의

30) 대구는 북을 이용한 설창예술이고 평시는 중국 북부의 극예술 중 하나이며 상성은 중국식 만담이다. 만주전전은 중국인들의 취향에 영합하기 위해 이러한 전통극을 방송자동차의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다.

31) 劉恩沛, 「遊動放送局隨行記」(上), 『大同報』, 1941.10.25.

32) 劉恩沛, 「遊動放送局隨行記」(中), 『大同報』, 1941.10.26.

어린이가 방송자동차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문화발전’이 아닌 선전의 효과일 것이다. 일부 농촌 주민들은 방송이라는 용어조차 잘 모르고 있었다. “방 무슨 송”이라며 얼버무리는 지역 주민들의 낮은 방송 인식에 기자는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sup>33)</sup> 그런데 도시 주민들의 반응은 좀 달랐다.

두 대의 방송자동차가 지린시에 도착하자 거리에는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들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 방송할 수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신장의 프로그램만 방송할 수 있다고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영화만 상영할 수 있다고 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기도 만져보기도 하며 흥미롭게 이 괴물의 형태를 응시했다.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칠한, 뚱뚱하고 큰 차가 거리에 곳곳이 서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위풍당당했다.<sup>34)</sup>  
(번역-인용자)

차를 만져보며 호기심을 드러내는 지린시 주민들의 모습은 농촌 주민들과 별반 다름없다. 그런데 자동차를 둘러싼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방송을 거론하는 대목은 도시 주민들의 방송 인식이 보다 높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물론 사전의 선전 효과가 일정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신장 프로그램만 수신할 수 있다는, 당시 중국어 방송의 실태를 비교적 정확하게 언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된다. 실제로 중일전쟁이 발발한 후, 만주국의 제2 방송(중국어)은 신장중앙방송국에서 편성한 프로그램을 각 지역에서 동시에 방송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을 한 사람은 평소에 방송을 자주 듣는, 방송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은 청취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도시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계층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라디오 방송에 대한 인식이 달랐을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3) 劉恩沛, 「遊動放送局隨行記」(11), 『大同報』, 1941.11.20.

34) 劉恩沛, 「遊動放送局隨行記」(下), 『大同報』, 1941.10.27.



가두 홍보가 끝나면 방송 시설을 점검하며 공개 방송 준비에 돌입했다. 방송은 대체적으로 오후 5~6시경에 시작해서 9~10시경에 마쳤다. 주로 관련 기관 앞이나 공공장소에서 방송을 진행했는데 사전 홍보와 당일의 가두 홍보의 효과로 늘 방송 시간 전부터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다.

松花江邊을 지나 라디오 영업소 앞에 정차하자 현지의 사람들은 5시 반부터 白山공원에서 자동차 공개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전의 선전도 충분히 진행된 듯 가두의 곳곳에는 선전의 포스터가 붙여 있었고 영업소 앞에는 간판도 세워져 있었다. (중략)전등이 적은 會場에는 대충 3,4천인의 대중들이 몰려들었다. 그리고 야시장에 나온 듯 북적였고 경관도 나와서 교통 정리를 하고 있었다. 단파방송기로부터 레코드가 방송되었고 松嶽반장 이하의 승무원들은 영사기의 상태를 보면서 방송기를 점검하고 있었으며 전력배급을 위해 電業 측 관계자도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중략) 23일도 어젯밤 못지않은 맑은 날씨였다. 그래서 정각까지는 이 두 대의 자동차를 둘러싼 관람자가 약 6천명으로 들끓었다. 그리고 대부분이 滿系 대중이었는데 이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자동차의 전도가 휘황하다는 것을 느끼도록 했다.<sup>35)</sup> (번역-인용자)

10월 22일, 지린시 공개 방송 전의 풍경을 담은 위 인용문에 의하면 3~4천명의 주민들이 공개 방송을 보기 위해 일찍부터 공원을 찾았으며 이튿날에는 6천명으로 늘어났다. 지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늘 수 천 명의 주민들이 공개 방송을 찾아 그야말로 야시장을 방불케 했다. 이러한 사실은 한편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방송자동차라는 ‘소리 나는 괴물’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주민들, 특히 농촌 주민들이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주지하듯 식민지 시기 대중들이 집합하는 장소에는 항상 경찰이 등장

35) 「文化の尖兵出發す-放送自動車同乗記」, 『電電』, 1941.11, 65頁.

했다. 위의 글에서처럼 방송자동차의 공개 방송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경찰들에 의해 항상 맨 앞 몇 줄에는 어린이들, 그 뒤에는 남성들, 그리고 맨 뒤에 여성들이 줄서있었다.<sup>36)</sup> 이러한 정렬 방식은 ‘교통정리가 아닌 대중들의 사상적 질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한편, 이러한 사례는 만주국의 젠더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공개 장소의 풍경으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영화 상영 도중에 소매상들이 등장해 간식이나 음료를 팔았다는 것이다. 야시장을 떠올릴만한 장면이지만 이는 실제로 당시 중국인 극장(실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화 풍경이었다. 그러므로 영화를 상영하는 순간만큼은 극장 그 자체였다.

공개 방송은 대체적으로 각 기관 주체들의 인사말, 라디오 방송에 대한 해설, 영화 상영 등 순서로 이루어졌다. 라디오 방송에 대한 해설은 방송 원리, 수신기 구입 및 청취 권유, 시국 강연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아래 두 편의 수기를 통해 방송 해설과 그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을 살펴 보도록 하자.

① 아나운서가 차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들고 음성 테스트를 했다. 그러자 즉시 조용해졌다. (중략) 우선 현재의 복잡한 국제정세 하에서의 라디오 방송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무선전신의 발명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가 발명가의 힘든 역사적 이야기를 들려주고 잠깐 휴식을 가졌다. 순간 방송차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노젓는 노래가 사람들의 귓가로 스며들었다. “좋아요”, “좋아요” 어디서부터가 흥분한 소리가 터져 나왔다. (중략) 이어 아나운서가 또다시 차 위로 올라가 방송 현황과 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환기시켰다. (중략) 갑자기 또 다시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했다. 영화가 시작되었다.<sup>37)</sup> (번역/강조-인용자)

36) 劉恩沛, 「遊動放送局隨行記」(11), 『大同報』, 1941.11.20.

37) 劉恩沛, 「遊動放送局隨行記」(下), 『大同報』, 1941.10.27.

② 앞에 한무리의 어린이들이 앉았다. 그들은 모두 무료로 영화를 보기 위해 왔다. “꼬마 친구들, 영화만 보려고 하지 말고 위대한 발명가가 되려고 생각해야 해요, 에디슨과 마르코니 모두 어렸을 때 꿈을 키웠어요, 그 결과 그들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했어요, 그들이 없었다면 이 세상의 밤이 얼마나 어둡고 적막했을지 생각해 보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 자동차를 본 이후 방향을 정해야 해요. 앞으로 과학적 두뇌를 충실하게 해서 인류의 행복을 위한 일을 해야 해요...” 여기까지 말하자 어린이들은 실증이 나서 “그만해요, 그만해요, 빨리 영화 보여주세요!”라고 했다. 나의 말이 그들에게 효과가 없을 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어른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진국에 영화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는 무선전신이라는 문화 전파의 병기도 수용할 줄 몰랐어요, 이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요, 우리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빨리 추격해서 따라잡고 알았으면 바로 실행해야 해요, 이렇게 두뇌를 충실하게 하고 생활을 개선해야만 건전한 국민이 될 수 있고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신천지를 건설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해요. 따라서 이 방송자동차에 대한 경험을 계기로 물질문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즉시 과학 산물을 받아들여야 해요...” 어른들은 비교적 조용했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더욱 싫증을 내는 바람에 나는 준비한 말을 잊어버리고 말았다.<sup>38)</sup> (번역/강조-인용자)

위의 두 인용문은 각각 지린시와 판스현(磐石縣)에서 진행된 방송 해설이다. ①은 우선 ‘복잡한 국제정세 하에서의 라디오의 중요성과 무선전신의 발명 과정을 설명하고 다음 ‘방송 현황 및 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환기시키고자 했다. ②는 아이와 어른을 대상으로 각각 다른 해설을 진행한 부분이다. 우선 아이들에게는 에디슨과 마르코니를 언급하며 과학적 인식을 심어주고자 했다. 다음 어른들에게는 ‘문화 전파의 병기’로서의 라디오 방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즉시 이 과학적 산물을 수용

38) 劉恩沛, 「遊動放送局隨行記」(8)(9), 『大同報』, 1941.11.22.

함으로써 새롭고 이상적인 국가 건설에 이바지할 것, 이를 통해 ‘건전한 국민’이 될 것을 요구했다. 요컨대, 라디오 전파기술의 과학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라디오 방송을 보급하고자 했다. 이러한 사례는 방송극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무선통신기술을 발명한 굴리엘모 마르코니에 관한 연극인 <마르코니><sup>39)</sup>가 1939년에 방송극으로 방송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들은 만주전전이 방송 기술 향상에만 주력한 것이 아니라 라디오 보급 활동에 그와 관련된 과학기술의 특성을 적극 활용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청취자들은 시극이나 과학과 관련된 강연에는 무관심한 듯했다. 앞의 인용문을 보면 장차 제국을 이끌어갈 소국민들에게 과학의 중요성을 극력 설명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해설자의 말문이 막히게 할 정도로 싫증을 내면서 오로지 영화 상영만을 고대했다. 어른들 역시 해설자들의 열변을 귀 기울여 듣는 듯 조용하다가도 쉬는 시간에 음악과 전통 곡예가 흘러나오거나 만화(애니메이션), 영화를 상영할 때면 갑자기 환호를 부르짖으며 장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특히 영화는 공개 방송 당시 지역 주민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들이 그곳에 집합한 것은 방송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화를 보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영화는 지역 주민들도 만영(만주영화협회)의 순회 영사를 통해 이미 접했기 때문에 비교적 익숙했고 인기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주전전은 애초에 라디오 방송의 특성에 어울리지 않지만 예비 청취자를 동원할 목적으로 그들에게 익숙하면서도 인기가 많은 영화를 채택했던 것이다. 당시 상영했던 영화는 <예원연인>(藝苑情侶)이었는데 지린시에서 처음으로 공개 방송을 하던 날에는 전압이 낮은 관계로 무성으로 상영되었다. 이튿날에 다시 전압을 올려 유성영화 상영에 성공함에 따라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영화는 어느 구 극단이 화재가 난 후, 여배우가 사처에 부모를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차에 부딪쳤는데 알고 보

39) <마르코니>는 중국인 극작가 리차오(李喬)의 작품으로 1939년 6월 20일 평텐방송화극단(奉天放送話劇團)에 의해 방송되었다.

니 잃어버린 부모였으며 그 후, 여배우는 부모님의 지원 하에 다시 새 극단을 설립하게 된다는 내용이다.<sup>40)</sup> 남녀의 사랑 이야기와 여주인공의 불우한 조우 및 반전의 결말 등이 관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극 중에는 중국인들의 즐겨 듣는 다구가 등장하여 큰 인기를 끌었다.

그 밖에 만화도 상영되었다. 아이들은 시야 확보를 위해 소리를 지르고 눈을 비비다가도 만화가 시작되면 “일만여 쌍의 눈동자를 즉시 수림속의 흰 막으로 집중시켰다”는 묘사<sup>41)</sup>로 보아 만화가 아이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공개 방송은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에게 라디오 문화의 특이성을 인식시키고 친근감을 갖게 함으로써 라디오 보급에 일조하고자 했다. 방송을 마칠 때 사람들은 ‘충분히 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거나 ‘내일 꼭 다시 오라고 부탁했다.<sup>42)</sup> 이와 같은 아쉬움의 토로는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문화오락적 소비를 향한 욕망의 발현이었다. 따라서 방송자동차가 상징하는 과학과 문명은 근대 미디어문화 인식의 측면에서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방송자동차가 만주국의 라디오 방송 보급에 일조했다면 아마도 그것이 지닌 미디어의 근대성(과학성, 오락성)에 큰 공이 있을 것이다. 반면 방송자동차의 1차 순회 활동만을 통해 그 프로파간다적 기능이 얼마간의 효과를 양산했는지는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1차 순회 활동을 통해 드러난 국책선전에 대한 무반응 내지는 외면의 태도로부터 짐작컨대 이동방송의 프로파간다성이 의도대로 순조롭게 수행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40) 古市雅子, 『滿映電影研究』, 九州出版社, 2010, 70頁 참고. 이 글은 <예원연인>을 화속에 복이 숨어 있다는 주제를 담고 있으며 ‘환상과 우연, 놀람과 기쁨 등 극적 요소를 통해 관객들로 하여금 고통을 잊고 만주국의 새로운 생활을 동경하게 하려는 소위 위안류의 국책 영화로 분류했다.

41) 劉恩沛, 「遊動放送局隨行記」(下), 『大同報』, 1941.10.27.

42) 劉恩沛, 「遊動放送局隨行記」(下), 『大同報』, 1941.10.27.

#### 4. 결론을 대신하며

본고는 전시체제가 사상전의 산물이자 만주국의 산업 발전 및 그 과학과 문명의 산물이었던 이동방송의 출현 배경과 1차 순회 활동의 양상을 고찰했다. 이를 통해 이동방송의 실체를 부분적으로 밝혔는데, 이를 더욱 완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직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우선 방송자동차의 운행 기간이다. 방송자동차가 출범 당시 만주전전은 지린성 지역을 중심으로 한 1차 순회 활동을 시작으로 3차까지 40일 동안 운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따라서 방송자동차의 2, 3차 및 그 이후의 운행 여부에 대해 밝힐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운행했을 경우, 지역에 따른 방송 내용 및 청취자들의 반응에 대해 보다 소상히 고찰해야 한다. 반면 1차 혹은 2~3차 운행 이후 중단되었다면 그 이유 또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다음, 이동방송의 내용에 있어서 본고에서 밝힌 라디오 방송과, 축음기를 통한 음악과 전통곡예의 재생 및 영화와 애니메이션 상영 이외의 실연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이상의 방송과 영사 기능 외에 1943년 조선에서 등장한 매신교화선차대는 자동차 후미에 야담과 만담 및 연극을 공연할 수 있는 무대도 갖추고 있었다.<sup>43)</sup> 만주국의 방송자동차가 그러한 기능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공연자들을 대동하여 야외무대에서 실제로 공연했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그러므로 이 점 또한 실증적인 자료를 근거로 증명할 수 있다면 이동방송의 활동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재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동방송에 대한 제국 및 방송 주체의 평가 역시 그의 완전한 실체 및 그 효과를 가늠하는 척도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과제들은 본고의 연구를 토대로 향후의 연구 작업을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43) 매신교화선전대의 실체와 그 활동에 관해서는 배선애, 앞의 글, 참고.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大同報』, 『滿洲放送年鑒』, 『宣撫月報』, 『電電』

### 2. 단행본

서정원·임성모·송석원 편, 『제국일본의 문화권력』, 소화, 2011.

이두현, 『한국신극사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이상우 편, 『전쟁과 극장』, 소명, 2015.

제임스 프록터, 손유경 역, 『지금, 스투어트 홀』, 엘피, 2006.

프래신깃트 두아라, 한석정 역, 『주권과 순수성: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나남, 2008.

孫邦 編, 『偽滿文化』, 吉林:吉林人民出版社, 1993.

貴志俊彦·川島真·孫安石 編, 『戦争・ラジオ・記憶』, 東京:勉誠出版, 2006.

古市雅子, 『「滿映」電影研究』, 北京:九州出版社, 2010.

### 3. 논문

강희주, 「만주국의 선전전과 라디오 방송」,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김려실, 「조선영화의 만주 유입 - 『만선일보』의 순회영사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32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7.

김호연, 「일제 강점 후기 연극 제도의 변화 양상과 그 의미: 이동극단, 위문대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30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서재길, 「제국의 전파네트워크와 만주의 라디오 방송」, 『한국문학연구』 제33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7.

이덕기, 「일제하 전시체제기 이동연극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30집, 한국극예술학회, 2009.

이복실, 「만주구 조선인 연극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이화진, 「일제 말기 이동극단 활동의 전개 양상과 그 한계」, 『한국연구』 제30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3.

代珂, 「偽滿洲國的廣播劇」, 『外國問題研究』第三期, 東北師範大學, 2014

蔣磊, 「偽滿洲國媒介傳播特征辨析」, 『中國社會科學報』, 中國社會科學雜誌社, 2015.

Abstract

## A Study on the Radio Broadcasting and Mobile Media of Manchukuo

– Focused on the 1st Tour by Broadcasting Vehicle

Li Fushi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the emergence background and the activity aspects of mobile broadcasting, which is the unique form of broadcasting in Manchukuo that appeare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period. With the reinforcement of cultural arts as the weapon of the propaganda warfare during the Second World War period, movement of media for national mobilization was magnified. Mobile broadcasting appeared as the symbol of propaganda, science, and civilization after transmission technology and broadcasting network were expanded, development of receiver and automobile manufacturing technology were secured, and broadcasting supply and a number of Chinese listeners were secured under the establishment and active role by the Manchukuo Telecommunication Corporation and the pursuit of the Broadcasting Business Five-Year Plan. Broadcasting technology, development of receiver, and automobile manufacturing technology played decisive roles in the emergence of broadcasting vehicles.

Broadcasting vehicles aimed to mainly deliver state policy propaganda and awareness of scientific civilization while making tours at rural areas where power was scarce. However, rural residents focused on cultural entertainments such as music, traditional circus, movies, and comics which were designated as the things to induce mobilizing broadcasting. Afterward, the desire by the consumers with regard to modern entertainment culture could be interpreted. In other words, broadcasting vehicles raised awareness of modern media



culture to local residents as the symbol of science and civilization and aroused the desire as the subject of consumption. Therefore, the tangible effects of broadcasting vehicles can be found through modernity of media (scientific character and entertainment character). Meanwhile, the effects of the propaganda character by broadcasting vehicles, intended by broadcasting subjects, are unknown. However, when taking into account no response or external attitude with regard to national propaganda through mobile broadcasting, it can be assumed that the propaganda character of mobile broadcasting was not carried out smoothly.

Key Words : Civilization, Manchukuo, Manchukuo Telegraphic and Telephone Corporation, Radio Broadcasting, Science Technology

접 수 일: 2018년 5월 10일

심사기간: 2018년 5월 12일 - 5월 27일

게재결정: 2018년 6월 15일